

佛敎·印度思想辭典

16년 노력... "불교학 발전 밑거름 기대"

'불교·인도사상 사전' 김승동 교수

2,351쪽의 두툼한 부피에 담긴 표제어는 18,530여개. 불교 및 인도사상 연구·검토·활용에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상·인물·문헌을 모두 수록했다. 인도·중국·한국·일본 불교 관련 용어를 모두 찾아 정리했

상사전)에 이은 세 번째 동양철학 사전으로, 일본·중국 등의 18개의 사전과 불교경전을 토대로, 김 교수가 직접 표제어를 뽑고 풀이를 한 후 박

영어 표기를 첨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사전편찬 원력은 이것으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는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더욱 사전 발간에 몰두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 동안 <유교·중국 사상사전>과 <동양철학사전>을 더 펴내고 동로교수들과 시작했던 <철학대사전>도 마무리 할 것"이라는 계획을 털어 놓는다.

"사전 발간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를 정도"라는 김 교수의 수면시간은 하루 2~3시간. "사전 발간을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밝혔듯이 17년 전 시작된 사전 발간이 이제 김 교수의 수행이자 화두가 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값 15만원.



동양 최대규모의 '불교·인도사상사전' 편찬한 김승동 교수.

철학자로 평생 후학을 지도해온 김승동(2·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16년간의 노력 끝에 <불교·인도사상사전>을 펴냈다. 우선 불교와 인도 사상을 포괄하는 방대한 규모의 사전을 불교학자가 아닌 철학자가 썼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책의 한구절

"자연주의의 명성이란, 공부하는 대상 세계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세계에 대한 이해와 순수한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다."
- 인간의 영혼을 조화롭게 하는 책 <자연은 나의 영혼입니다> (제임스 스톤 지음, 정영문 옮김, 모색, 값 7천5백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죽어야 할 필요는 없다. 살아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숨을 쉬면서 아름다운 나무를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있다. 숨신다는 걸 의식하며 숨을 한번 쉬고 우리는, 심장, 간, 이가 아프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간다."
- 참여불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상과 지혜를 보여주는 책 <이 세상은 나의 사랑이며 또한 나의> (릭날란 외 지음, 진우기·신진옥 옮김, 양문, 값 9천2백원.)

"오늘을 살고 있는 불자들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존재의 궁극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내면 존재의 위대한 사랑

'나의 작은 별 이야기'

신간 <나의 작은 별 이야기>이 안 지음, 씨앗을 뿌리는 사람 표지의 위쪽에서 지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바라보는 별은 글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별 속에 비친 모습과 지구에 서 있는 주인공은 왜 같은 모습이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상상해 봐, 네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다가오게 될 때, 그때 네 곁을 하나, 네 눈짓 하나 하나가 모두 기쁨이 되지 않겠어. 고개를 들어도 고개를 숙여도 온통 사랑 일뿐이야. 그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네 별로 보일 거야."

발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 그림은 인간이란 존재와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읽는 아예에 전달해 준다. 별과 나무 그리고 불세 등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 로 하여금 주인공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동화형식의 글이지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철학적이다. 물질과 마음의 상관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등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값 8천원.

전통미술 보는 코드 '생명·자연·인간'

'미술은 아름다운...'

정병모 지음

미술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장벽이 있다.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전(前)시대의 미술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감상의 시각이 종종 작품의 진실을 흐려놓기도 한다.

미술 작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를테면 작가의 사상, 시대적 배경,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 따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미술 감상은 불가능하다. 신간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 (다할미 지음)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 미술의 내밀한 세계로 이끄는 책이다.



'생명'을 화두로 우리 조상들은 과연 우리 미술을 어떻게 보아왔는가에 서부터 시작되는 이 책의 지은이는 정병모(전 화재학부 교수, 경주대학교 박물관장) 씨. 그는 우선 선조들의 미술 인식을 생명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란 세 단어로 요약한다. 조상들은 미술을 무생물의 물체가 아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생명체로 느꼈고, 자연을 미술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인간을 미술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이다. 즉 지은이

는 '한국의 전통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정의하고, 생명이란 관점에서 한국미술의 특징과 흐름을 살피고 있다. 예를 들어 탑은 돌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체이고, 그림은 종이 아니라 생명체이며, 도자기 또한 그릇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다른 미술사 책처럼 편년체적 서술 방식을 따르지 않고 시대별 대표 장르로 우리 미술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삼국시대의 조각, 통일신라시대의 탑, 고려 불화 등 전통미술 가운데, 각 시대를 풍미한 대표적 장르를 중심으로 그 전개과정과 조형세계를 깊이 있게 파고든다. 값 1만5천원.

김종근 기자 gamp@buddhania.com

드라마같은 역사같은 달마전기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유준호 지음

사료에 충실하면서도 드라마처럼 쉽게 풀이한 달마 이야기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유준호 지음, 시공서가 나왔)다. 지은이는 달마의 생애와 가르침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중국 선종의 개척자 가 된 역사적 배경을 조망한다.

그는 특히 인도의 왕자로 태어나 왜 낮은 땅 중국의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면벽구년이란 전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팔뚝을 잘라 바치면서까지 진리를 구하던 제자 혜가 스님과의 이야기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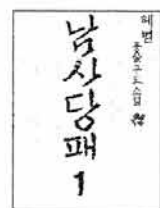


하나 남기고 다시 전설 속으로 훌연히 사라져 버렸는지 등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 책은 일화 중심의 달마 전기가 아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무엇이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짚어보는 것이 이 책의 본래 목적이다. 값 7천원. 김종근 기자

결립패의 한과 희망

승려 소설가 해범(원주 송정암 주지) 스님이 풍물구도소설 <남사당패> (전3권, 태일출판)를 내놓았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삶에 활역소가 되었던 남사당, 그 중에서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결립패들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담은 이야기다. '떡배'라는 10살 소년이 20살이 되기까지 풍물패와 함께 또는 따로, 가슴 속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을 키우고 삭이며 구도자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다. 값 각권 7천원. 김종근 기자



'남사당패' 해범 지음

진심 밝히면 참사람

'진심직설' 이기영 전집

한국 불교학계의 거목이었던 이기영(1922~1996) 박사가 생전에 가장 즐겨 읽었던 <진심직설>이, 불어 이기영 전집 22권 <진심직설 역해 및 강의> (한국불교연구원에 출간됐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역해는 지난 73년 동국대학교 현대불교신서 9권으로 출간된 <진심직설>을 실었고, 2부 강의는 이기영 박사가 지난 87년 11월부터 88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에서 실시한 강의를 정리한 것이다. 값 1만원. 김종근 기자



'진심직설' 역해 및 강의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인 집계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도서 안내: (02)737-0695

성하출판 영업부 (02)2273-4452

가족의 우환, 결혼 생활, 사업의 성패, 미래의 전망등 갖가지 인생문제 해답을 이책에서 얻는다!

'살아있는 에너지, 우리 몸엔 氣가 있다'

21세기, 과학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

과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4차원의 정신세계 기(氣)'. 질병과 고통 등의 갖가지 인생문제의 해답을 氣 전문가 지선 스님에게서 얻는다. '좋은 기'를 받느냐 '나쁜 기'를 받느냐에 따라 무병장수할 수도 단명병사할 수도 있다. 좋은 기를 얻는 방법만 터득하면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

'인간의 운명은 氣에 따라 바뀐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이다', '노력과 성공은 정비례한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등의 좋은 글이 많지만 이것은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말씀이고, 4차원의 정신세계에서 볼 때에는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우선은 '기'의 영향으로 인간 삶의 행·불행, 인간사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모든 즐거움과 슬픔, 기쁨과 고통, 무병장수와 단명병사 등 인간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이 '좋은 기'와 '나쁜 기'의 영향으로 그 첫째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자신이 전개하는 논리와 현실적 사례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환경을 좋은 기로 변형시킴으로써 그 기의 작용으로 행복한 인생의 축진제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현실의 우환과 불행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신과 가족들이 밝은 미래의 인생을 보장 받고 싶은 사람, 미래에 큰 삶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 현재 불행속에 있는 남녀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책, 평생 일년 열두 달 편안하게 살게 하는 지혜의 그릇이 바로 이 책이다.

기(氣)이는 만큼 행복하다

지선 스님의(氣) 강의 전국 강태

- 한국정신과학회 세미나 (2001년 3월 28일 대전 KAIST강당)
MBC-TV 아카데미 출연 (2001년 5월 4일 안동 MBC-TV방송국)

- 저자·지선 스님 (대구 팔공산 자비사 주지 스님)
신국판·278페이지 정가 9,000원
책속 부록: 기력을 일컫는 지선스님의 신비의 말이도

